2003학년도 12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1					2

ㅇ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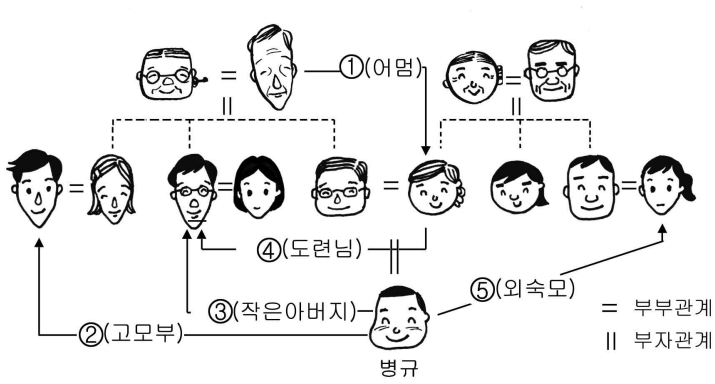
ㅇ답안지에 수험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ㅇ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대화 내용으로 볼 때, 제대로 된 호칭이 아닌 것은?

〔1점〕



2. (물음) 인터뷰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신용 카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보기〉와 같이 제작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용 카드 발급,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② 신용 카드 제도, 선진 사회 건설의 걸림돌입니다.
③ 신용 카드 문제, 이제는 기업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④ 신용 카드, 잘만 사용하면 당신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⑤ 신용 카드, 우리 국민 모두의 레드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물음) 이 강연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1점〕

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②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③ 서비스 산업에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④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알리기 위해
⑤ 서비스 산업과 사치·향락 산업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4. (물음) 두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자는 구체적 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② 남자는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③ 여자는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남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남자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6〕 들려 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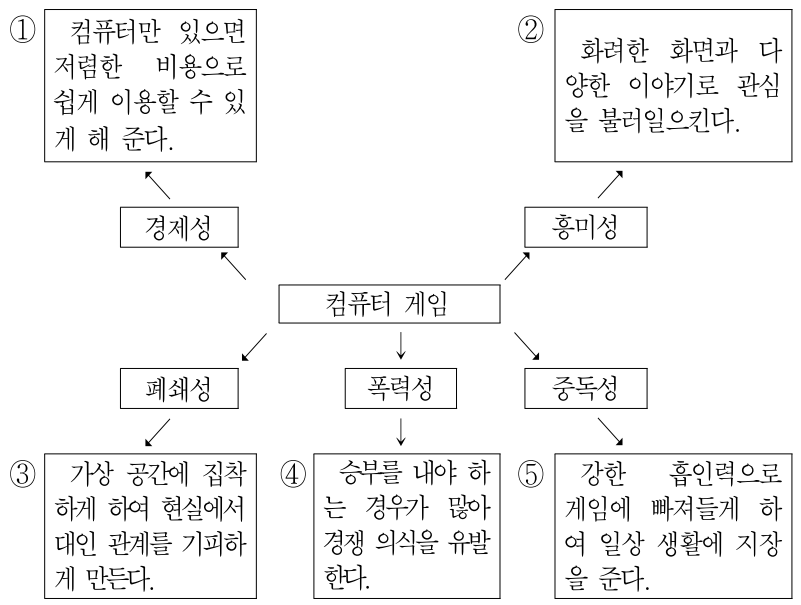
5. (물음) 이 대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직업은 단순한 일이나 노동과는 다르다.
② 직업은 자아를 실현하는 삶의 한 방식이다.
③ 직업은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④ 직업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다.

6. (물음) 이 대담에서 뉴스를 인용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② 직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려주기 위해
③ 어떤 직업이 장래성을 지니는지 설명하기 위해
④ 현대 사회에서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주기 위해
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시사하기 위해

7. '컴퓨터 게임'을 소재로 하여 글을 쓰기 위해, 먼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거쳐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한 후,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목 : 바람직한 국어 생활

Ⅰ. 도입 : 국어 생활의 실태

Ⅱ. 전개
  1. 혼란한 국어 생활의 원인 규명
    가. 국어를 경시하는 풍조
    나. 대중 매체의 영향
    다. 외래어의 사용
  2.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노력
    가. 국어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나. 국어 교육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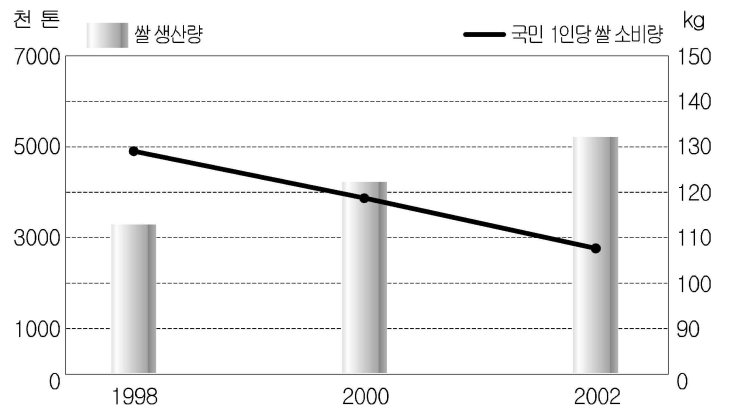
Ⅲ. 마무리 :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① '도입'에서 '맞춤법을 무시한 간판, 외래어를 남용한 상품명' 등의 예를 근거로 들어 주의를 환기하며 논의하고자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② '전개-1-가'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 언어의 문법 파괴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한다.
③ '전개-1-다'에서 '외래어의 사용'이라는 항목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수정한다.
④ '전개-2'에는 '전개-1-나'에서 언급한 '대중 매체의 영향'이라는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으므로 '대중 매체의 국어 순화 노력'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⑤ '결론'에서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는 내용은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9. 〈보기〉는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영향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종합하여 설정할 수 있는 논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정부 통계 자료 : 쌀 생산량 및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 농민과의 인터뷰 : "도시 근로자들의 수입은 늘고 있다는데 우리 농민들은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 봤자 쌀값 하락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형편이예요. 그러다 보니 농사를 포기하고 떠나는 농민들이 많아 농촌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해요."

① 도시 근로자의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도시 근로자의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② 쌀값 하락으로 농촌 수입은 줄고 있는데, 도시 근로자의 수입은 늘고 있다.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③ 농촌은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도시 인구를 농촌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④ 쌀 생산량은 늘었으나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⑤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소비 감소로 쌀값이 하락하다 보니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쌀 소비를 늘려 농촌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정부의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가?

10. 〈보기〉에서 맞춤법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ㄱ-1, ㄴ-1, ㄷ-1　② ㄱ-1, ㄴ-2, ㄷ-2
③ ㄱ-1, ㄴ-1, ㄷ-2　④ ㄱ-2, ㄴ-1, ㄷ-1
⑤ ㄱ-2, ㄴ-2, ㄷ-2

11. 〈보기1〉의 편지를 읽은 아들이 답장을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 중, 〈보기2〉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사랑하는 아들 준에게

항상 함께 지내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려니 어색하구나. 하지만 이렇게 편지로 말하면 좀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글을 쓴단다.

네가 고등학생이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년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그 사이 키도 훌쩍 크고 한결 의젓해져서 엄마는 너를 볼 때마다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단다. 그런데 요즘 들어 네 표정이 왠지 어두운 것 같더구나. 무슨 말 못할 걱정이라도 있니?

준아! 엄마는 항상 네 편이란다. 너의 미래는 엄마의 미래이기도 하단다. 그런 네가 엄마 앞에서 며칠째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니? 언제든지 엄마와 의논하자꾸나. 그럼 기다릴게.

○월 ○일

언제나 아들을 믿는 엄마가

↓

〔구상한 내용〕

ㄱ.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자.
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밝히자.
ㄷ.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드리자.
ㄹ.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보자.
ㅁ. 엄마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자.

↓

〈 보 기 2 〉

언제나 저를 믿어 주시는 엄마 보세요.

엄마!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항상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몸과 마음이 따로일 수 없듯이 저도 엄마와 따로일 수 없다고 느꼈어요. 엄마의 편지 속에 있는 '너의 미래는 엄마의 미래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 사실은 제일 친한 친구인 민우와 다툰 일 때문에 며칠 동안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 애는 다 좋은데 내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쓰곤 하는 바람에 제가 화를 많이 내서 그렇게 됐어요. 구름장이 하늘을 뒤덮은 장마 때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어둡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말을 걸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민우에게 악수를 청하기로 했어요. 화해의 마음을 담은 편지도 한 통 써 놓았어요. 앞으로 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노력하는 아들이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월 ○일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들 준 올림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2. 〈가〉의 설명에 따라 〈나〉의 밑줄 친 부분을 '관용어'로 바꾸어 써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가〉

관용어(慣用語) :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롭게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어구.

〈나〉

달포 전 젖먹이에 불과한 영덕이를 남의 집에 맡겨 놓고 돌아서야만 했던 봉순이는 영덕이가 자꾸만 그리워졌다.
↳ ① 눈에 밟혔다.
더군다나 집안에 계속되는 불행한 일로 인하여 봉순이는 근심이 생겨났지만 표정만큼은 늘 밝았다. 하지만 먹을
↳② 혀를 내둘렀지만
것이 없어 굶고 있는 다른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봉순이는 무슨 일이든 찾아 나서야 했다.
↳ ③ 팔을 걷어 부치고
봉순이네 일이라면 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옆집 아주
↳ ④ 발 벗고 나서시는
머니는 읍내 한씨 집을 소개해 주셨다. 아주머니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애써 참아가며 버텨 냈다. 유난
↳ ⑤ 이를 악물고
히 어른스럽고 슬기로웠던 봉순이는 한씨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畵像) -

(나)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 오르는 아침 날 빛이 빤질한
은결을 도도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

(다)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도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나리고
숲은 말없이 잠드느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가 어지러울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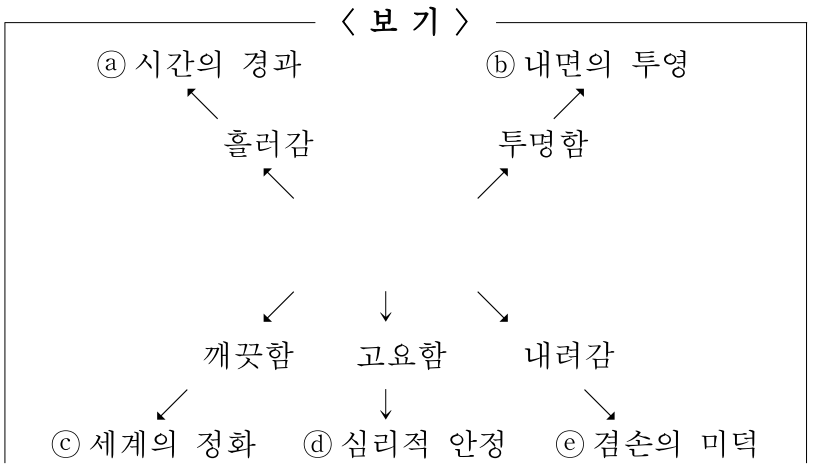
- 김광섭, 마음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는 모순된 감정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 (다)에는 임의 부재로 인한 괴로움이 드러나 있다.
③ (나), (다)는 추상적 관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 (나), (다) 모두 이상 실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반복과 열거를 통해 추억을 환기하고 있다.

14. 〈보기〉는 '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연상해 본 것이다. (가)~(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끼리 묶인 것은? [3점]

〈 보 기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 (가)의 소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나이'와 청자는 동일한 인물로 간주된다.
② 시인은 객관적인 태도로 '사나이'를 관찰한다.
③ 화자는 자신을 '사나이'로 객관화하여 드러낸다.
④ '미움'의 감정은 현실에 대한 청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⑤ '-ㅂ니다'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청자와의 신분 관계를 부각시킨다.

16. (나)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를 통해 얻은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이 이어지는
강물이 흐르고 있네.
돋쳐 오르는 아침 날 빛이
빤질빤질한 은빛 물결을 도도네.
가슴속인가 눈동자 속인가 또 핏줄 어디인가
마음이 도른도른 몰래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이 이어지는
강물이 흐르고 있네.

① 율격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렸다.
② 호흡을 느리게 하여 시상 전개에 변화를 주었다.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④ 시행을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심리의 변화를 암시하였다.
⑤ 토속적인 시어를 구사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7. (가)와 (다)의 작자가 대담을 나눈다고 할 때, 〈보기〉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회자 : 두 분 모두 '바람'과 '구름'을 소재로 삼았는데, 그 의미나 표현 의도는 무엇인가요?

☐

① (가) : 이들은 성스럽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천상의 사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들을 세속을 상징하는 '사나이'와 대비하기 위해 종교적 의미로 사용했지요.
② (다) : 저는 마치 물결과도 같은 여린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거나 그늘을 드리우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③ (가) : 그렇군요. 저는 '바람'이나 '구름'을 맑고 아름다운 자연물로 여겨서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했어요.
④ (다) : 제 시에서는 돌을 던지고, 고기를 낚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바람'이나 '구름'과 동일한 의미로 썼어요. 변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⑤ (가) : 저는 자연물에 계절감을 부여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주는 청량감을 표현하기 위해 '파아란 바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요.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정확하다', '완벽하다' 또는 '좋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혼란은 오히려 과학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게 만들었고, ㉠과학 방법에 충실한 과학을 그렇지 못한 유사 과학과 구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흔히들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학의 내용은 항상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분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과학에 대해 이러한 정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진리인지를 가려내는 능력과 방법이 없다면, 결론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의해 '과학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결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의해서 가려내야 한다. 어떤 결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그 결론이 유도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라 함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과학을 과정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과학 방법이다. 과학 방법은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귀납법은 실험, 관찰, 통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반면에 연역법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공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 추론에 의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또한 과학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에 그 결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결론이므로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론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과학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이론이나 학설들이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에 의해 부정되었다. 인류가 알아낸 가장 완벽한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했던 뉴턴 역학도, 상대성 이론도 양자론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했다.

충실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론도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얻어 낸 결론이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상반된 결론들이 나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분야의 특성상 엄밀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이런 오류가 자주 빚어지는 것은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18. 위 글의 내용을 강연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제목과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과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
- 학설과 이론을 근거로 주장해야

② **과학적인 결론을 얻기 위한 방안**
- 귀납법과 연역법을 먼저 이해해야

③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학의 힘**
- 인간의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④ **과학의 이해를 위한 올바른 접근 방안**
- 선입견을 불식하고 한계를 이해해야

⑤ **과학적 지식이 갖는 한계의 근본적 원인**
- 완벽을 추구하나 오류는 피할 수 없어

19.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다수의 합의에 의한
② 합리적인 과정에 따른
③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④ 궁극적인 진리가 담긴
⑤ 다방면에 응용될 수 있는

20. ㉡의 방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①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죽는단다.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고양이도 생명체니까 언젠가 죽을 거야.
② 제도란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합의한 약속이다. 법은 제도적 규범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③ 이번 시험을 잘 보면 어머니가 휴대 전화를 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험을 망쳐 버렸어.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올해도 휴대 전화를 갖기는 틀린 거 같아.
④ 거리에 넘쳐날 정도로 외래어의 남용이 심각하다. 언어는 언중들의 의식을 반영한다고 했기에 이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래어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강아지는 오줌을 누어서, 하마는 물 속에 배설물을 풀어서, 곰은 나무에 상처를 내서 자신들의 영역 표시를 한다. 이로 볼 때, 동물들은 영역 수호의 본능이 있을 것이다.

21.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지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모와 자식의 지능 검사(100명 대상)를 토대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결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15쌍 대상)의 지능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인간의 지능은 후천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이전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이렇게 상반되다니, 역시 과학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② 인간의 지능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지.
③ 15쌍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보다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더 믿을 만하지.
④ 지능 검사 자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기에 이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가 상반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야.
⑤ 과학적 연구 결과라도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오류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어.

22. 글쓴이가 생각하는 ⓐ와 ⓑ의 의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있기에 ⓐ를 얻을 수 있다.
② ⓑ가 있기에 ⓐ를 믿어서는 안 된다.
③ ⓑ의 부족한 점을 ⓐ가 보완해 준다.
④ ⓑ를 인정하면서 ⓐ를 수용해야 한다.
⑤ ⓑ를 극복했을 때 ⓐ를 얻을 수 있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선비의 사회 진출 경로는 크게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는 경우와, 산림(山林)으로서 초야에 묻혀 공부에만 전념하다가 관리로 특채되는 경우, 그리고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하는 음직(蔭職)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는 크게 소과와 대과로 분류된다. 생원 진사 시험이 소과로 불리는 자격 시험이라면 문과 시험은 대과로서, 여기에 합격해야 비로소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소과·대과의 경로를 밟지 않고 특채되는 산림은, 학파·정파의 구도로 전개된 조선 왕조의 특수한 정치 구조가 낳은 결과물이었다. 조선 시대 학문적, 정치적 상황에서는 한 학파의 영수(領首)가 한 정파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새롭게 집권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기네 정파 혹은 학파의 인물을 널리 등용하게 된다. 이 때 정계에 등장한 이들이 바로 특채 산림이다.

산림이 적극적으로 정치 일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던 17세기 비상 시국 당시였다. 양란을 겪은 조선은 해이해진 국가 기강을 확립하여 ⓒ흩어진 국론을 단합하고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바로 재야 산림을 등용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국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신선하다는 이점이 있었고, 재야에서 갈고 닦은 학문에 대한 기대까지도 모을 수 있었다. 17세기에는 산림이 국가의 중추 역할을 했고, 그만큼 대접도 받았다. 그들은 국란 후유증의 극복과 국민 단합, 그리고 국가 재건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관료를 지향하는 조선 선비의 진로에는 음직도 있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덕으로 얻는 벼슬을 음직이라고 한다. 덕망 높은 인사가 죽은 뒤에, 혹은 반정 등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과거의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아 죽은 인사의 후사(後嗣)를 찾다가 그 자손이 초야에 묻혀 있다고 하면, 그 조상에 그 자손일 것이라 여겨 벼슬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음직은 대부분 미관말직(微官末職)에 그친 데다가 당사자들 스스로가 음직을 떳떳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음직으로 출발했더라도 다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

조선 선비 중에는 은일(隱逸)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었다. 은일은 시대를 난세로 인식할 때 취하는 길이다. ㉡어지러운 시대의 정치판에서 자신의 머리와 지식이 난세를 연장시키는 데 악용될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든, 산림으로서 특채가 되든, 음직을 받든, 은일을 택하든 간에 조선 시대 지식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정치 지향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그들은 정치를 통해 자기 성취를 하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이 사회로 진출하였을 때 특히 강조한 것은 책임 의식이었다.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층이라는 그들의 자의식(自意識)은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적인 욕망을 이겨내고 나와 타인이 함께 삶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의 선(善), 즉 공의(公義)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선비들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② 과거 제도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려면 대과에 합격해야 했다.
③ 음직에 발탁된 선비들은 대부분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였다.
④ 일부 선비들이 은일을 선택한 것은 현실을 난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⑤ 집권한 영수는 정파 내부의 인물을 등용해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4.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상을 구분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25.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없는 말은? [1점]

① ⓐ : 진출(進出)할
② ⓑ : 소지(所持)하고
③ ⓒ : 분열(分裂)된
④ ⓓ : 봉착(逢着)하더라도
⑤ ⓔ : 첩경(捷徑)이라

26. ㉠의 입장에서 〈보기〉와 같이 '음직'을 비판하는 글을 쓸 경우, [ ]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도 있듯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과업을 수행할 사람을 뽑을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음직 제도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관직을 맡기고 있다. 덕망 높은 인사의 후손이라 해서 그 역시 훌륭한 인격과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마치 [ ]과 다를 바가 없다.

① 우리 고장은 올해도 풍년이 들었으니 내년에도 틀림없이 풍년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② 도깨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
③ 공자는 유학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항상 옳을 것이므로,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④ 무지개 색깔은 아름다우므로, 이를 하나의 색으로 만들면 더욱 아름다운 색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
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인데,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27. ㉡과 가장 가까운 삶의 태도가 드러난 것은?

①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 빛을 새오나니
청강(淸江)에 좋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정몽주의 어머니 -

②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매라.
- 월산대군 -

③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 순 -

④ 흥망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 -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孤臣寃淚)를 비 삼아 띄워다가
님 계신 구중 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본들 어떠리
- 이항복의 시조 -

(나)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ᄂᆞᆯ리ᄂᆞᆯ리 ᄂᆞᆯ랑셩 ᄂᆞᆯ라리 ᄂᆞᆯ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ᄂᆞᆯ리ᄂᆞᆯ리 ᄂᆞᆯ라셩 ᄂᆞᆯ라리 ᄂᆞᆯ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ᄂᆞᆯ리ᄂᆞᆯ리 ᄂᆞᆯ라셩 ᄂᆞᆯ라리 ᄂᆞᆯ라

이링공 뎌링공 ᄒᆞ야 나즈란 디내와손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ᄯᅩ 엇디 호리라
ᄂᆞᆯ리ᄂᆞᆯ리 ᄂᆞᆯ라셩 ᄂᆞᆯ라리 ᄂᆞᆯ라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ᄂᆞᆯ리ᄂᆞᆯ리 ᄂᆞᆯ라셩 ᄂᆞᆯ라리 ᄂᆞᆯ라
- 청산별곡 -

* 가던 새 : 갈던 밭, 또는 날아가는 새.
** 잉무든 장글란 : 이끼 묻은 쟁기를, 날이 무디어진 병기(兵器)를.

(다)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불구 이 내 잠아 검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슨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여 넌 갈 데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드시 자심(滋甚)하뇨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 동창(月明東窓) 혼자 앉아
삼사경(三四更)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 잠 못 들어 한하는 그런 사람 있건마는
㉮ 무상 불청**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는고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할랴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발을 풀어내어
드문드문 질긋 바늘 두어 땀 뜨듯 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아래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슨 요수 피우는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 잠노래 -

* 검치두덕 : 욕심이 언덕처럼 쌓인.
** 무상 불청(無常不請) : 괜히 청하지도 않았는데.
*** 언하당 : **그런 생각을 하자 마자 바로**.

28. (가)~(다)에서 공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학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문학은 자연을 모방하는 행위이다.
② 문학은 즐거움을 얻으려는 놀이이다.
③ 문학은 도덕적 교훈을 담는 그릇이다.
④ 문학은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다.
⑤ 문학은 내면의 욕구를 표출하는 도구이다.

29. (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높은 봉'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표상이다.
② '고신 원루'에는 화자의 심리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③ '구름'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로 설정되어 있다.
④ '비'는 화자의 정서를 '님'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⑤ '구중 심처'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공간이다.

30. 다음은 〈보기〉를 고려하여 (나)를 영상물로 만들기 위해 구상한 것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이 노래의 화자를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 실연당한 사람, 현실에서 소외된 지식인 등으로 보는 여러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 노래가 불려지던 고려 시대가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때임을 감안하면, 화자를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한 농민으로 볼 수도 있다.

* BGM : 배경 음악 SE : 음향 효과

	①	②	③	④	⑤
	장면1	장면2	장면3	장면4	장면5
	초췌한 모습의 주인공이 산으로 피신하는 장면	자고 일어나 새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산 아래의 밭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	밤에 가족을 떠올리며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장면	누군가가 날아가는 새를 향해 던진 돌에 맞아 아파하는 장면
	* 카메라가 산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따라간다.	* BGM : 느린 장단의 음악 * SE : 새 울음 소리	* 과거에 평화롭게 밭을 갈며 살던 모습 (O.L.)	* 가족과의 단란했던 시절 (O.L.) * BGM: 슬픈 곡조의 음악	* 고통스러워하는 얼굴 (C.U.)

31. 〈보기〉를 (다)의 화자가 쓴 일기의 일부라고 할 때, 작품의 내용과 <u>어긋나는</u>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2. 발상 및 표현이 ㉮와 유사한 것은?

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기에 진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죠?
②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도 있다던데, 비야 너는 왜 우리 수재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니?
③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해는 시나브로 서산에 뉘엿뉘엿 지려 하고 있네.
④ 나뭇가지가 하나일 때는 손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 개가 묶인 경우에는 쉽지 않다.
⑤ 오늘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 점심으로는 칼국수 말고 다른 걸 먹는 게 어때요?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진이 돌아와 밤에 혼자 빈방에 누우니 팔 선녀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얼굴빛은 눈에 아른거려 앞에 앉아 있는 듯, 옆에서 당기는 듯 마음이 황홀하여 진정치 못하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남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堯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면 백만 대군을 거느려 적진에 횡행하고, 들어서는 백관(百官)을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몸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차고,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눈에는 아리따운 미색을 희롱하고, 귀에는 좋은 풍류 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 텐데,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만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백팔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구나.' ㉠

이럭저럭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이 이미 깊었다. 눈을 감으면 팔 선녀가 앞에 앉았고 눈을 떠 보면 문득 간 데가 없었다.

성진이 마음에 뉘우쳐 생각하되,

'㉡<u>불법(佛法) 공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제일인데 사사로운 마음이 이렇듯 일어나니</u> 어찌 나의 앞날에 해롭지 않겠는가?'

하고, 즉시 향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蒲團)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염불을 하였다.

이 때 홀연 창 밖에서 동자(童子)가 급히 말하되,

"사형(師兄)은 주무십니까? 사부(師父)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크게 놀라 생각하되,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연고가 있겠구나.'

하고 동자를 따라 바삐 들어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거느려 있는데 촛불이 대낮 같았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되,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뜰에 나려 엎드려 가로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십 년이 넘었지만 일찍이 한 말도 불순하게 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이르되,

"네 용궁에 가 술을 먹었으니 그 죄도 있거니와 오다가 돌다리 위에서 팔 선녀와 함께 언어를 수작(酬酌)하고 꽃을

던져 희롱하였으니 그 죄 어찌 하며, 돌아온 후 선녀를 그리워하여 불가의 경계(警戒)를 전혀 잊고 인간 부귀를 생각하니 그리하고서 공부를 어찌 하겠느냐. 네 죄가 중하여 이 곳에 있지 못할 것이니, 네 가고자 하는 데로 가거라."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가로되,

"스승님! 저에게 진실로 죄가 있지만 주계(酒戒)를 파(破)한 것은 용왕이 괴롭게 권해서 마지 못해 한 것이고, 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한 것은 길을 빌리기 위함이어서 각별히 부정한 말을 한 바가 없었고, 선방에 돌아온 후에 잠시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였으나, 마침내 스스로 뉘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제자에게 죄가 있으면 사부께서 회초리로 때려 꾸짖으실 뿐이지 어찌하여 차마 내치려 하십니까? 사부님을 우러르기를 부모같이 하여 제가 십이 세에 부모를 버리고 사부님을 좇아 머리를 깎은 이후, 연화도량(蓮花道場)이 곧 제 집이니 저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이르되,

"네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하는 것이니 네 만일 있고자 하면 뉘 능히 가라 하겠느냐? 네 또 말하기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하는데,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니라."

대사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황건 역사(黃巾力士)는 어디에 있느냐?"

홀연 공중으로부터 신장(神將)이 내려와 명령을 기다리니, 대사가 분부하되,

"네 죄인을 영거(領去)하여 풍도(豊都)에 가 교부(交付)하고 오너라."

〈뒷부분의 줄거리〉 성진은 풍도로 간 후 팔 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 꿈 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난 성진은 이후 팔 낭자를 차례로 만나 두 명의 처와 여섯 명의 첩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다. 이후 성진과 팔 선녀는 대사의 설법으로 불생 불멸의 대도를 얻어 극락 세계로 간다.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3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를 독백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요약적 서술을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④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을 주로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⑤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해학을 드러내고 있다.

34. 위 글의 내용을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성진의 내면에는 출장입상(出將入相)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
② 사부는 성진이 풍도로 쫓겨가는 것이 자업자득(自業自得)임을 강조한다.
③ 절에서 떠나라는 사부의 말은 성진에게 청천벽력(靑天霹靂)과도 같았다.
④ 성진은 팔 선녀가 눈앞에 아른거려 밤이 깊도록 전전반측(輾轉反側)한다.
⑤ 성진은 사부의 질책에 반성은커녕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5.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았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학습 목표〕
A. 작품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을 이해한다.
B. 작품에 나타난 사건을 간략히 정리한다.
C. 작품에 나타난 등장 인물의 성격을 이해한다.
D. 작품에 나타난 구조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E. 작품에 나타난 고전 소설의 특징을 이해한다.

① A : 성진이 입신양명을 원하면서 한편으로 불가 공부에도 뜻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글은 주로 유교와 불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 B : 성진은 팔 선녀를 만난 후 속세의 부귀영화를 흠모하다가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깨달음을 얻는다.
③ C : 사부는 사사로운 정에 구애받지 않는 냉혹한 인물인데 비해 성진은 나이가 많은 스승의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할 정도로 정이 많은 인물이다.
④ D : 이 글은 현실의 인물인 성진이 꿈에서 양소유로 살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⑤ E : 대사가 황건 역사를 부르자 홀연 공중으로부터 신장이 내려 왔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볼 때, 고전 소설의 전형적 특징인 전기성(傳奇性)이 엿보인다.

36. 〈뒷부분의 줄거리〉를 고려할 때, ㉠을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누구에게나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이다.
②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③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④ 속세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참된 도를 발견할 수 없다.
⑤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높은 사람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37. ㉡이 가장 잘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

②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碑)돌을 세우지 말라. /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③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김소월, 산유화(山有花) -

④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 티없는 꽃잎으로 살어 여려 했건만 /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 신석초, 바라춤 -

⑤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논리 중 하나는 사회 복지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자원의 ⓐ배분(配分)은 거래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인 반면, 사회 복지 정책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 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나) 사회 복지 정책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侵害)한다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사회 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이득을 적게 볼 경우, 그 차이만큼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정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데 ⓒ차별(差別)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낸 세금의 액수와 그 재화의 이용을 통한 이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적은 이득을 보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불필요하게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합리화될 수 있다.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제공하는 재화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해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자유에 맡겨둘 때보다 그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개인들에게 민간 부문의 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보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져야만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소극적 자유는 줄어들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라)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아의 사회적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保障)해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 복지 정책이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자원 배분에 개입하여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때는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하여 빈자(貧者)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때에는 적극적인 자유를 ⓔ신장(伸張)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 복지 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마) 적극적 자유를 높이는 것이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근거는 소극적 자유로부터 감소되는 효용이 적극적 자유로부터 증가되는 효용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극적 자유의 제한이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용이하다면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8.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사회 복지 정책의 한계
② 사회 복지 정책의 양면성
③ 사회 복지 정책의 발전 과정
④ 사회 복지 정책의 근본적 개념
⑤ 사회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9. (나)와 (다)의 논지 전개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나)에서 논의한 것을 (다)에서 사례를 들어 보완하고 있다.
② (나)에서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소개한 후, (다)에서 이를 절충하고 있다.
③ (나)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후, (다)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④ (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다)에서 반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⑤ (나)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해 (다)에서 새로운 관점을 내세워 해명하고 있다.

40. 〈보기〉는 위 글과 관련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학생의 대답 중, 글쓴이의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① 철수 : 사회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 가치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② 영희 : 국민들의 자유 의지에 맡겨 둔다면 사회 복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진희 :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대신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그만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④ 영수 : 국민 모두가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를 바라고 있고 이러한 재화의 제공에 드는 비용 부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자유의 제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⑤ 희정 : 국가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사회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1. ⓐ~ⓔ의 사전적 의미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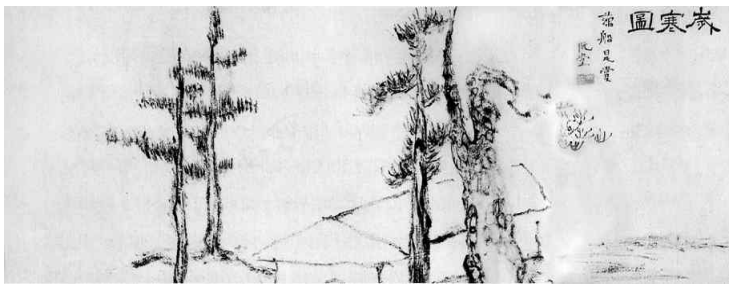
① ⓐ 배분(配分) : 몫을 고르게 나누어 줌.
② ⓑ 침해(侵害) : 침범하여 해를 끼침.
③ ⓒ 차별(差別) : 차등이 있게 구별함.
④ ⓓ 보장(保障) :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증하거나 보호함.
⑤ ⓔ 신장(伸張) : 시설이나 외관 따위를 새로 장치함.

42. ㉠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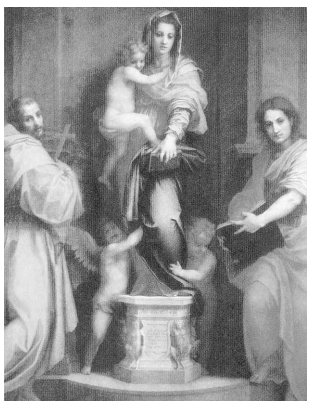
① 교실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② 다수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단속한다.
③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한다.
④ 고속도로에서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갓길 통행을 제약한다.
⑤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날짜별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통제한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그림 A와 B는 우리가 흔히 동양화, 서양화라고 하는 그림이다. 이들은 언뜻 보기에도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



〈그림 A〉
김정희, '세한도(歲寒圖)'



〈그림 B〉
안드레아 델 사르토, '아르피에의 성모'

그 차이를 있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그림을 대하는 정신적인 측면에 있다. ㉠<u>동양에서는 그림을 인격 수양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렸다.</u> 따라서 화가의 정신 세계와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사물을 보면서 그 모습을 그리거나, 대상에 따라서 색을 칠하거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 등은 그림을 그리는 기초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u>서양에서는 주로 장식이나 기록적인 측면, 그리고 표현 방법을 중시하여 그림을 그렸다.</u> 대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양 미술에서는 원근법이나 빛에 따른 대상의 변화,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 등이 발달하였다.

동양화와 서양화는 그림을 그리는 재료도 달랐다. 동양에서는 농담(濃淡)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먹과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 ㉢<u>먹과 붓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한지나 화선지 같은 종이나 결이 고운 비단이었다.</u> 서양에서는 주로 캔버스에 유화 물감과 기름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는 아마나 면으로 짠 천에 아교 같은 것을 칠하여 만든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동양화와 서양화는 매우 다르게 변화했다. 먹으로 그릴 경우,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에 잘 그려야 했다. 말이 쉽지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화면 전체를 그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종이를 바꿔가며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리는 공부를 해야 했다. ㉣<u>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u> 대강의 형태를 스케치하고 그 위에 차근차근 색을 칠해 가면, 나중에는 칠한 부분이 두꺼워져서 표면에 질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서양화는 덧칠을 통해서 그림의 형태와 색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동양화에서는 선으로 가늘게 그리는 기법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동양의 미술을 선의 예술이라고 한다. 반면에 서양화는 선보다는 명암이나 색을 강조한다. 평면인 캔버스에 어떻게 대상과 닮게 입체적으로 그리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서양화는 배경까지 색칠하기 때문에 캔버스 색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다. 하지만 ㉤동양화는 하얀 여백을 살려서 공간을 처리한다. 동양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백을 보고 미완성 작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백의 미는 작품 구도를 염두에 두고 추구하는 동양화의 손꼽히는 특성 중 하나이다.

4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동양화에서는 원근법이 발달하였다.
② 서양화는 대상의 정확한 묘사를 중시한다.
③ 서양화는 유화 물감으로 덧칠하여 질감을 나타낸다.
④ 동양화와 서양화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서로 다르다.
⑤ 동양화의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오랜 수련이 필요하다.

44. 글쓴이가 위 글을 쓰기 위해 고려했을 전략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 보 기 〉

ㄱ. 두 대상이 지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자.
ㄴ. 대상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자.
ㄷ. 복잡한 내용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쉽게 이해시키자.
ㄹ. 시대적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5.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그림 A〉와 〈그림 B〉를 감상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하늘 : 그림 A는 먹물의 농담(濃淡)을 이용하여 명암을 처리했기 때문에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② 차민 : 그림 A의 작가는 추운 겨울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그려, 자신이 추구하는 지조·절개의 정신을 담고자 한 것 같아.
③ 송이 : 그림 B는 묘사 대상인 인물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서 마치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④ 유미 : 그림 A는 그림 B와 달리 가는 선을 이용하여 집과 소나무를 묘사한 것을 보니 '선'이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⑤ 가희 : 그림 B는 화면 전체를 색칠했지만 그림 A는 그렇지 않아. 그림 A의 작가가 화면의 많은 공간을 여백으로 처리한 것은 작품의 구도를 살리고자 한 것일 거야.

46. ㉠~㉤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글의 논리적 흐름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중국의 어떤 화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는 형태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망하고, 내 정신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림에서의 정신을 강조했다.
② ㉡ : 그것은 그리스·로마 신화나 예수를 그린 종교화, 귀족들의 초상화 등이 근대 이전 서양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③ ㉢ : 이러한 재료들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인과 서민층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④ ㉣ :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덧칠을 하여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라 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다.
⑤ ㉤ : 동양화에서의 여백은 단지 그리고 난 뒤에 남는 공간이 아니라, 화가의 예술적 안목이 반영된 것이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에(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 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 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 첨지는 십 전짜리 백동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 때도 김 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 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 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켕긴다 하고 눈을 흡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 때 김 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 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김 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홉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 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 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 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세살먹이)에게 죽을 사 줄 수도 있다. — 팔십 전을 손에 쥔 김 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중략〉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려보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 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도 들은 듯싶다. 딸국딸국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탄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 첨지는 인력거 채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예, 예" 하고 김 첨지는 또다시 달음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 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재겨 놀려야만 쉴새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중략〉

김 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 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麤氣) —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 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 오라질 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에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어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澌盡)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껴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 년!"
"……."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 "……."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정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양한 음성 상징어들을 구사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대화에 거친 말투를 사용하여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집과의 공간적 거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인물의 의지적 태도를 통해 모순된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⑤ 행운과 불행을 사건 전개의 두 축으로 삼아 극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48. 김 첨지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떠올렸던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49. 위 글의 일부를 바꾸어 쓴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처음〕 새침하게 흐린 품이 비가 좀처럼 그치지 않을 듯하더니, 언제 그랬냐 싶게 비가 멎으면서 서편 하늘에 드물게 보는 무지개가 선명하였다.

〔끝〕 김 첨지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아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이 때였다. 위로 치뜬 눈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한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던 김 첨지는 문득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아내의 얼굴에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니…… 오늘은 드물게 운수가 좋더니만……."

"당신 언제 왔어요? 내가 정신없이 잠이 들었었나 봐요."

김 첨지는 아내를 일으켜 세운 뒤 말없이 숟가락을 쥐어 주었다. 아내는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설렁탕 한 그릇을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비워 버렸다.

아내를 바라보는 김 첨지의 눈에서 또 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① 아내에 대한 김 첨지의 깊은 사랑이 여기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 있군.
② 이렇게 바뀌니 행복한 결말이 되면서 안타까웠던 내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것 같아.
③ 이렇게 되면 작품 제목인 '운수 좋은 날'에 함축되어 있던 반어적인 의미도 없어지겠는데.
④ 서술의 시점이 달라지니까 원작과 비교해 볼 때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한결 가까워졌어.
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뜬 하늘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아.

50. ㉠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1점〕

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더니.
②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더니.
③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④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더니.
⑤ 서 발 막대 내저어도 거칠 것 없다더니.

51.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밑줄 친 소재 중,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은?

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온 중실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면서 먹을 것 걱정이 전혀 없다. 이것저것 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풍부한데다 벌집에서 구할 수 있는 **꿀**은 조금으로도 충분히 요기가 되기 때문이다. - 이효석, '산'에서 -
② 내심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는 어느 날 '나'에게 은근히 **감자** 세 개를 쥐어 준다. 그러나 어수룩한 '나'는 점순이의 속마음도 모르고 자존심이 상해 그것을 뿌리친다. 그러자 점순이는 몹시 화가 나 눈물까지 흘리며 휑하니 달아난다. - 김유정, '동백꽃'에서 -
③ 징용 나갔다가 한 팔을 잃은 만도는 제대하는 아들을 마중 나갔다가, 전쟁 통에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의 모습에 몹시 상심한다. 돌아오는 길 내내 침묵하던 만도는 주막에서 **술** 몇 잔을 거푸 마신 다음에야 속이 좀 풀어져 비로소 아들에게 말을 건넨다. - 하근찬, '수난 이대'에서 -
④ 옥희는 자기처럼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 사실을 자기 어머니에게 알린다고 말한다. 이에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말리지만 옥희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데, 어머니는 옥희를 향해 곱게 눈을 흘긴다. -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
⑤ 이틀이나 굶으며 일자리를 찾다가 집에 들어간 '나'는, 부엌에서 몰래 뭔가를 먹다 깜짝 놀라며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던지고는 얼굴이 붉어진 채 밖으로 나가는 아내를 보고 불쾌함을 느낀다. 그러나 아내가 나간 뒤 아궁이에서 잇자국이 선명한 **귤껍질**을 발견한 '나'의 눈에는 눈물이 괸다. - 최서해, '탈출기'에서 -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하다. 반언어적(半言語的) 표현은 어조, 음색, 속도, 고저, 장단, 강약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비언어적(非言語的) 표현이란 얼굴 표정, 몸동작, 눈맞춤 등을 통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담화 상황과 맥락을 형성한다.

동일한 말이라도 어조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철수가 갔어."라는 문장의 끝을 올린다면(↗) 의문을 나타내지만, 끝을 내린다면(↘) 사실을 나타낸다. 끝을 끊어(∨) 말하면 감탄을 나타내지만 끝을 끌어(→) 말하면 사실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다. 말하는 속도는 말하는 이의 성격이나 내용, 중요도, 상황 등과 관련이 있다. 소리의 고저도 표현에 영향을 준다. 소리를 높게 내면 흥분, 긴장, 경고, 분노, 열망 등의 표시가 되고, 반대로 낮게 내면 확신, 안정, 위엄, 자신감 등의 표시가 된다.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완해 준다. 말할 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눈맞춤도 그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 골고루 시선을 주는 게 좋다.

이처럼 표현과 이해의 의사 소통에서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적 표현 못지 않게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 한국인의 행동을 규정지었던 〈소학〉이나 〈내훈〉에서는 '비록 비어 있되 ㉠찬 것처럼 하며, 사람이 없되 있는 것처럼 하라.'고 가르쳤다. 방에 들기 전에 반드시 건기침을 하라 했고, 문밖에 신 두 켤레가 있는데 말소리가 없으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은 예리한 판단력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洞察)'에 해당된다. 한말(韓末)의 미국인 선교사 게일(J.S. Gale)이 지적했듯이 한국인은 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할 줄 안다.

통찰의 원인으로는 한국인이 정착 농경민이었음을 들 수가 있겠다. 농경은 파란이 없는 규칙적인 작업을 요구하기에 사람끼리 서로 말이 없어도 영위할 수가 있었다. 또한 대지와도 무언의 대화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유럽은 정착보다는 이동이, 안정보다는 전쟁이 많았던 생활 환경 때문에 정확한 의사의 교환이 필요했다. 곧 변화가 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통찰에 의한 의사 소통이 발달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유럽의 언어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중시하는 면이 있다.

상호간의 조화나 안정을 위해서는 통찰보다 더 좋은 미디어가 없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행동을 취함으로써 친밀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권이 넓어지면서부터 서구식의 정확한 의사 소통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통찰의 습성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나 손해, 오해를 빚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통찰이라는 의사 소통의 문화를 살려 나가되,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2. (가)와 (나)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겠군.
②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려면 언어적 표현과 비·반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고려해야겠군.
③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는 언어적 표현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④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비·반언어적 표현에 유의하면 의사 전달이 충분히 가능하겠군.
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언어적 표현보다 비·반언어적 표현을 더 중시해야겠군.

53. 위 글을 읽고 '통찰'에 바탕을 둔 의사 소통이 되도록 〈보기〉의 담화를 완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느라 지쳐 돌아온 며느리는 곧바로 저녁밥을 안쳐 놓고 마루에 앉아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다. 시어머니가 업고 있던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 울어대자, 며느리가 아이를 받아 젖을 먹인다. 이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 낮에 널었던 빨래가 다 젖을 형편이다.

며느리 : (난감한 표정으로) 어머님, 소나기가 오네요.
시어머니 : _____

① (퉁명스런 목소리로) 얘, 빨래 젖는다.
② (안쓰러운 표정으로) 좀 쉬었다 일하렴.
③ (며느리를 쳐다보며) 저녁은 천천히 먹자꾸나.
④ (하늘을 쳐다보며) 정말 소나기가 시원하게 오는구나.
⑤ (마당으로 나가며) 너는 젖 먹이렴, 빨래는 내가 걷으마.

54. (나)를 읽고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꼭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② 서양은 역사적으로 환경 변화가 심했으므로 언어가 더 부정확하지 않나요?
③ 담화 상황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통찰이 필요 없지 않나요?
④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⑤ 서양에서도 분위기와 상황으로써 의사 표현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55. ㉠과 관련하여 〈보기1〉과 같이 여러 용례들을 수집해 보았다. 이를 〈보기2〉에 따라 국어 사전에 수록하는 연습을 해 볼 때, 그 구분이 적절한 것은?

〈보기 1〉

㉮ 독에 물이 가득 찼다.
㉯ 그의 행동은 마음에 차지 않았다.
㉰ 공을 차러 운동장으로 나갔다.
㉱ 손목에 예쁜 시계를 차고 있다.
㉲ 찬 밤공기가 밀려들었다.
㉳ 그는 보기보다 성격이 차고 매서웠다.

〈보기 2〉

○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그 용법이 확장된 것이다.
○ 기본적 의미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된 것은 별개의 단어인 동음어(同音語)로 취급하여 다른 표제어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老僧)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 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 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는 것이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 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을 들어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었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 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한 노사(老師)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노사의 상(像)이다.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이고 만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깊은 밤,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에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사아밧티이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殺人鬼) 앙굴리마알라를 귀의시킨 것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길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게 만든 것도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스하게 내려 쬐는 햇살이 아니었던가!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인 것을.

- 법정, 설해목(雪害木) -

(나) 어떤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도리·들보·서까래·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度)'과 ⓓ'족(足)'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思考)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

5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깨달음을 종교적 믿음과 연결짓고 있다.
② 특정한 계층의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③ 일화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④ 추억을 회상하며 과거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⑤ 관념적 지식에 사로잡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57. (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군.
②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로군.
③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겠어.
④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영향력이 큰 것 같아.
⑤ 구태의연한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겠군.

58. (가)에 나오는 낱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노승	—	손길	—
②	산	—	눈	—
③	부처	—	자비	—
④	해	—	햇살	—
⑤	바다	—	물결	—

59. (나)의 '목수'와 '차치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은?

① 목 수 : '탁'을 가지러 집에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직접 신어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② 차치리 :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어요? '탁'이 있어야 발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죠.
③ 목 수 : 당신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사고에 빠져 있군요. '탁'은 발을 본뜬 것이잖아요.
④ 차치리 : 그러고 보니 발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물의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군요.
⑤ 목 수 :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야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발'이 먼저 있고 나서 '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60. ⓐ~ⓓ 중, 와 그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은? 〔1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